종전 기대감 확대에 국제유가 급락, 계속되는 기술주 랠리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오늘도 이어진 S&P500 및 NASDAQ 사상최고치 경신

- 미 증시는 DOW +1.24%, S&P500 +1.46%, NASDAQ +2.03% 상승. 기술주, 산업재 강세, 에너지, 유틸리티 약세
- 실적시즌을 지나며 두드러진 AI·반도체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, 미-이란 종전 협상 진전 소식에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하락하며 투자심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
- 전일 실적을 발표한 AMD(+18.6%)에 이어 슈퍼마이크로컴퓨터(+24.6%) 등 큰 폭의 상승, 마이크론(+4.1%), 인텔(+4.5%) 역시 강세 흐름을 이어감. 다만, 금일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ARM(+13.6%)은 시간외 약세

미국-이란 종전 합의 임박 조짐에 국제유가 낙폭 확대

-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대화 진전에 따른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발표. 외신들은 미-이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,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, 대이란 제재 해제 등 14개항 양해각서(MOU) 체결 논의중이라 보도
- 이란전쟁 종전 가시성과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에 힘입어 국제유가 급락 WTI $95.2(-6.9%) $100선 하회
- 달러인덱스 97.9로 하락. 금 +3.0%, 은 +6.0%, 구리 +3.1%

유가 하락 영향 국채금리 하락 한편, 고용지표 견조, 조기 금리인하 경계 의견

- 유가 급락으로 인플레 우려 완화됨에 따라 국채금리 하락 10Y 4.352%(-6.4bp), 2Y 3.870%(-7.4bp)
- 4월 ADP 민간고용 +10.9만명 증가, 전월·컨센 상회, 2025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. 업종별 교육·보건서비스 +6.1만명, 교통·운송·모빌리티 +2.5만명, 건설 +1.0만명, 전문·비즈니스서비스 -0.8만명. 임금상승률 YoY +4.4%
-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AI 발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조기 금리인하를 경계.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 미래성장기대가 과도하게 선반영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금리를 인상해야할 수 있다고 발언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RM	ARM	+13.6%	장 마감 후 실적발표, 시간외 -8%대 하락중. 발표 직후 어닝서프라이즈 소식에 시간외 급등하기도 했으나, 자체개발칩 AGI CPU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 제기되며 변동성 확대. AGI CPU에 대한 수요 전망치 상향($2B)에도 불구,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출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유지한 영향. 한편 르네 하스 CEO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ARM이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는 가속화 단계를 목격하고 있다 강조
GLW	코닝	+12.0%	엔비디아(+5.8%)와 미국 내 광섬유·광학연결솔루션 생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 체결. 계약 일환으로 엔비디아는 코닝 보통주 1,500만주를 주당 $180에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 확보
APP	앱러빈	-1.9%	장 마감 후 실적발표, 시간외 +1%대 상승중. 자사 광고 서비스와 AI 기반 툴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어닝서프라이즈 발표. 최근 S.W 섹터 매도세 및 SEC 조사 우려로 주가가 30% 이상 하락했던 바 있음. BofA는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, 이커머스 부문의 본격적인 반등이 확인된다면 구글,메타를 잇는 제3의 대형 마케팅 채널로 도약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 평가
DIS	디즈니	+7.5%	실적발표. 매출 +7%YoY 성장, 어닝서프라이즈 발표에 주가 강세. 부문별로는 테마파크 등 경험 부문이 7%,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10%, 스포츠 부문이 1% 성장. 모건스탠리는 매크로 환경 및 소비 심리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도 전 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다 평가. 가이던스 상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두 자릿수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. $8B 규모의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
CVS	CVS헬스	+7.7%	실적발표. 어닝서프라이즈 및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발표에 주가 강세. 헬스케어 베네핏 부문이 호실적 견인. 보험 사업의 수익성 지표인 의료손해율이 87.3%→84.6%로 개선되며 영업이익(+53%YoY) 급증 주도
DASH	도어대시	+1.1%	장 마감 후 실적발표, 시간외 +11%대 상승중. 견조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멤버십 가입자 수 확보 및 긍정적 가이던스 제시